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
The Moderating Role of a Mothers' Personality

박현주(Hyeon Ju Park), 안선희(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s of mother's personalit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21 mothers of toddlers (aged from 18 to 35months) in Seoul.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their pers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 The collected data were main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Second,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parenting behavior were analyzed. As a result, number of children, mother's age,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ersonal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arenting behavior. Thir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ther's pers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 it was found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 mother's neuroticism and the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ffected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mother's extraversion and the toddlers's negative emotionality affected the mother's rejection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to support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주제어(Key words):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성격특성(personality), 걸음마기 아동(toddler)

I. 서론

부모는 아동이 출생하여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국내외 학자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 발달, 언어발달, 성격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이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H. Oh & J. Lee, 2013), 친사회적 행동(J.

*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61-9239, E-mail: shahn@khu.ac.kr

Kim, 2010), 자아존중감(M. Menon et al., 2007), 자아탄력성(K. Chung, M. Ki, & E. Ha, 2012), 또래유능성(I. Choi, 2014) 등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거부적, 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Y. Chang & Y. Lee, 2012; B. Park, 2013), 우울 및 불안(C. Lee & E. Hyun, 2008)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성을 조장하지 않으며 과보호적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많이 보였다(H. Ruy & S. Lee, 2007).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아동발달의 전제조건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D. Jeong, 2014; T. Jung & H. Roh, 2005; E. Kim, 2011; S. Lee & J. Lee, 2012; H. Song, 200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Y. Bek, 2005; W. Kim, 2002; M. Lee, 2014). 이처럼, 서로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이므로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성격 특성, 효능감, 스트레스 등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자녀의 성이나 기질, 행동문제 등 자녀 관련 요인 그리고 남편의 양육협력,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등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S. Ahn, H. Kwon, & S. Park, 2012; Y. Chang & Y. Choi, 2014; E. Kim, S. Park, & H. Lim, 2009; M. Kim & K. Lee, 2011; I. Lee, S. Choi, & J. Park, 2010). 그 중에서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대표적 특성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또는 까다로운 기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며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거부적, 적대적 양육행동을 자주 보였다(L.

Clark, G. Kochanska, & R. Ready, 2000; H. Kwan & S. Chun, B. Park, 2013; 2015; Y. Park & K. Lee, 2011). 또한 자녀가 화를 잘 내고, 기분이 쉽게 나빠지는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어머니는 자신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H. Kwan & S. Chun, 2015).

그러나 양육하기 까다로운 특성의 아동을 둔 어머니가 항상 자녀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이어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 S. Kim and H. Choi(2007)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 Park and K. Rubin(2008)은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까다로운 아동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완충 요인을 탐색하고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성격이란 인간의 정서, 사고방식, 적응방식 및 행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A. Caspi & A. Shiner, 2006)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5개의 요인 즉 신경증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분하고 있다(P. Costa & R. McCrae, 1992).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 슬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성향인 신경증성과 우호적이고 열성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인 외향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밝혀졌다(N. Kim, B. Park, & H. Doh, 2012; S. Park, 2015; Y. Sohn, 2011).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대체로 쉽게 불안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낮기 때문에 아동에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했으며(E. Song, 2010), 자녀와 상호작용 시 통제적이고 강압

적인 권력 행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H. Jeon & Y. Kim, 2014; N. Kim, B. Park, & H. Doh, 2012). 이와 달리,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 낙관적이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H. Song & K. Kim, 2008).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인 귀인 성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J. Vondra, H. Sysko, & J. Belsky, 2005). 이를테면, 우울하고 짜증을 잘 내는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왜곡해서 판단하거나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M. Song & S. Han, 2011; J. Yoon, 2011). 반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며, 온정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까다로운 행동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지각하며(S. Jin & Y. Kim, 2003), 정보를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R. Gomez, A. Gomez, & A. Cooper, 2002). 이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에 따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차이로 인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불안감을 높게 느끼며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이와 달리,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까다로운 행동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지각하며,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더 자주 보일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직접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관련변인들의 직접적인 주 효과를 밝힌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걸음마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사이의 전이단계로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M. Bornstein, 2002) 아동의 자율성과 활동성이 강해지면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를 알아보고,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일반적 배경변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어머니의 성격특성(신경증성/외향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29명(58.4%), 여아가 92명(41.6%)이며, 자녀수는 1명이 80명(36.2%), 2명이 120명(54.3%), 3명 이상이 21명(9.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88명(39.8%), 35세 이상 41세 미만이 118명(53.4%), 41세 이상이 15명(6.8%)이었으며, 취업 중인 어머니는 135명(61.1%), 전업주부는 86명(38.9%)으로 취업 중인 어머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29명(13.1%), 전문대학 졸이 65명(29.4%), 4년제 대학 졸이 102명(46.2%), 대학원 졸 이상이 25명(11.3%)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350만원 미만이 58명(26.2%), 35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이 61명(27.6%), 45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이 36명(16.3%), 5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이 22명(10.0%), 650만원 이상이 44명(19.9%)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양육비용은 50만원 미만이 42명(19.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4명(33.5%),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42명(19.0%), 150만원 이상이 63명(28.5%)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21)

Variable	Frequency (%)	
Child sex	Boy	129(58.4)
	Girl	92(41.6)
Number of children	1	80(36.2)
	2	120(54.3)
	Over 3	21(9.5)
Mother's Age	Under 35	88(39.8)
	35 - under 41	118(53.4)
	Over 41	15(6.8)
Employment	Employed	135(61.1)
	Non-employed	86(38.9)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9(13.1)
	College	65(29.4)
	University	102(46.2)
	Over master degree	25(11.3)
Family income (10,000 won)	Under 350	58(26.2)
	350 - under 450	61(27.6)
	450 - under 550	36(16.3)
	550 - under 650	22(10.0)
	Over 650	44(19.9)
Child-care expense (10,000 won)	Under 50	42(19.0)
	50 - under 100	74(33.5)
	100 - under 150	42(19.0)
	Over 150	63(28.5)

2. 연구도구

1)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ECBQ-SF; S. Putnam, M. Gartstein & M. Rothbart, 2006)을 K. Lee(2007)이 번안한 것 중 부정적 정서에 해당되는 5개 하위 영역(불안, 공포, 슬픔, 진정성, 좌절)의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불안은 빛, 움직임, 소리, 촉감 등의 정도, 비율, 복잡성 등과 같은 자극의 감각적 특성에 관한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공포는 예측된 고통이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한 불편함, 걱정,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말한다. 슬픔은 고통, 실망, 손실에 노출됨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낮은 감정 상태를 뜻하며, 진정성은 극도의 고통, 흥분, 일반적 각성으로부터 회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좌절은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방해나 목표 차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뜻한다. 부정적 정서성은 “아이는 어떤 과제(집짓기, 그림 그리기 등)를 완수하기 힘들 때, 쉽게 짜증을 냈습니까?”, “아이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달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분 이상 울었습니까?”, “아이는 자신의 옷이 짝 질 때 짜증을 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

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서성의 Cronbach의 alpha는 .88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E. Shaefer(1959)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근거로 Y. Park(1995)가 번안·수정한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과 온정적 태도, 수용적이며 아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 신뢰와 지원,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하는 등을 말하며, “나는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 “나는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준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혹은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과 침해적 개입 등을 뜻하며,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결정한 일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행동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 각각 Cronbach의 alpha는 .84, .85이었다.

3)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L. Goldberg (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T. Yoo, K. Lee, & M.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며, 각 요인 당 10개의 문항씩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성과 외향성 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신경증성이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쉬울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의미하며, “나는 쉽게 짜증이 난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뜻하며, “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경증성과 외향성 각각 Cronbach의 alpha는 .85, .87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6년 4월 18일부터 약 2주 간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명단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에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으며, 자료 조사가 허락된 어린이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후에 원장과 교사를 통해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와 구조화된 설문지 300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답 이후 설문지를 개별 소봉투에 넣어 봉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8부로서 회수율은 79%로 나타났다.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21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

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의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일반적 배경변인인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최종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최종학력이 고졸의 어머니와 전문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졸 이상의 어머니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고졸이하의 어머니($M=23.62, SD=5.25$)가 전문대학졸($M=19.95, SD=4.75$), 4년제 대학교졸($M=21.57, SD=5.82$), 대학원졸 이상($M=20.40, SD=5.37$)의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

2. 일반적 배경변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일반적 배경변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자녀수($r=-.21, p<.01$), 어머니의 연령($r=-.19, p<.01$),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r=-.28, p<.001$), 어머니의 신경증성($r=-.34,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어머니의 외향성($r=.33,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연령($r=.12, p<.01$),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r=.28, p<.01$), 어머니의 신경증성($r=.4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외향성($r=-.39$, $p<.01$)과는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Table3>).

3.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였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산출하여 10미만인지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자녀수, 모의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에 독립변인으로 자녀수와 모의 연령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각 하위요인을, 3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각 하위요인 즉, 신경증성과 외향성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Table 4>),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16$, $p<.05$). 어머니의 신경증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신경증성의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화 하였다(<Figure 1>).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는 어머니의 신경증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83$, ns). 반면에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 때는 신경증성이 낮은 어머니($M=43.19$)가 신경증성이

Table 2. Differences of Parenting Behavior

(N=221)

Variable		n	M(SD)	t/F	
Warmth-acceptance	Child sex	Boy	40.38(4.51)	-.33	
		Girl	40.57(3.85)		
	Employment	Employed	39.99(4.18)	-1.47	
		Non-employed	40.84(4.18)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9	40.28(5.19)	.78
		College	64	40.98(3.75)	
University		102	40.12(4.22)		
Over master degree		25	41.12(3.89)		
Rejection-restriction	Child sex	Boy	21.60(5.89)	.27	
		Girl	20.83(4.63)		
	Employment	Employed	134	21.85(5.63)	1.33
		Non-employed	86	20.84(5.19)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9	23.62(5.25) ^a	3.57 [*]
		College	64	19.95(4.75) ^b	
University		102	21.57(5.82) ^b		
Over master degree		25	20.40(5.37) ^b		

* $p < .05$

주) 사후검정: Duncan, a>b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21)

		(1)	(2)	(3)	(4)	(5)	(6)	(7)
Number of children(1)		1						
Mother's age(2)		.26**	1					
Child's negative emotionality(3)		.08	.02	1				
Mother	Personality	Neuroticism(4)	.08	.07	.23**	1		
		Extraversion(5)	.05	.09	.13	.40**	1	
	Parenting behavior	Warm-acceptance(6)	.21**	.19**	.28**	.34**	.33**	1
		Rejection-restriction(7)	.12	.12**	.28**	.47**	.39**	.50**

* $p < .05$, ** $p < .01$

높은 어머니($M=39.59$)보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t=-5.06, p<.001$). 한편, 어머니의 외향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음으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모의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 1단계에 독립변인으로 모의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각 하위요인을, 3단계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각 하위요인 즉, 신경증성과 외향성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neuro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N=221)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Number of children	-1.67	-.19**	-1.30	-.15**	-1.44	-.16**
Mother’s age	-1.60	-.19**	-1.48	-.18**	-1.35	-.16*
Negative emotionality(A)			-.04	-.21**	-.05	-.25***
Neuroticism(B)			-.18	-.27***	-.16	-.24***
A X B					-.01	.16*
R ²	.08		.22		.24	
F	9.46***		15.03***		13.7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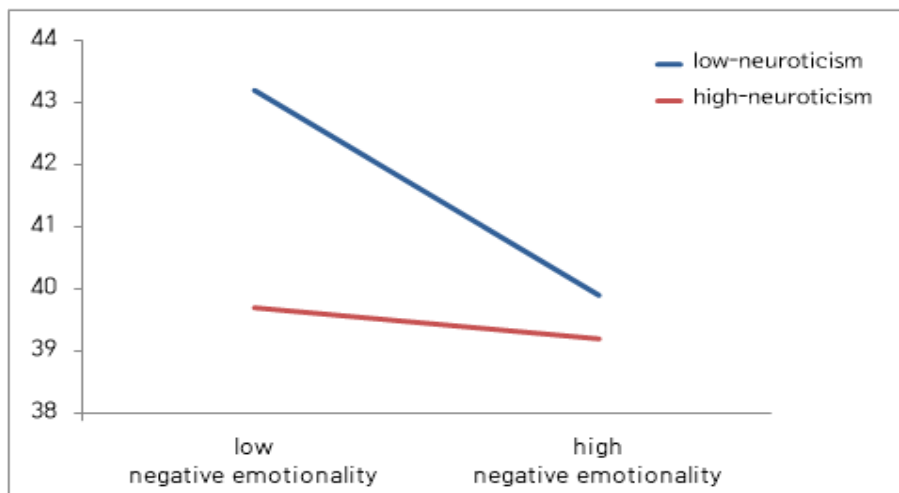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neuro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extraver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N=221)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Mother’s age	-1.60	-.19**	-1.22	-.14*	-1.22	-.14*
Number of children	-1.67	-.19**	-1.79	-.20**	-1.80	-.20**
Negative emotionality(A)			-.05	-.23***	-.05	-.23***
Extraversion(B)			.22	.30***	.22	.30***
A X B					.00	.01
R ²	.08		.24		.24	
F	9.46***		16.61***		13.23***	

* $p < .05$, ** $p < .01$, *** $p < .001$

았다. 그 결과(<Table 6>), 어머니의 외향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거부·제재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14, p<.05$). 어머니의 외향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외향성의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화

하였다(<Figure 2>).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는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21.57$)가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23.67$)보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t=-2.19, p<.05$).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도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M=17.57$)가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M=22.53$)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extraver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jection Parenting Behavior (N=221)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Mother's age	1.89	.17 [*]	1.30	.12	1.34	.12 [*]
Mother's education level	-3.00	-.19 ^{**}	-1.91	-.12	-1.88	-.12
Negative emotionality(A)			.06	.22 ^{**}	.06	.22 ^{***}
Extraversion(B)			-.33	-.35 ^{***}	-.29	-.31 ^{***}
A X B					.01	.14 [*]
R ²	.06		.23		.25	
F	6.66 ^{**}		16.49 ^{***}		14.46 ^{***}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력은 더미변수화 함(고졸=0, 전문대학 졸 이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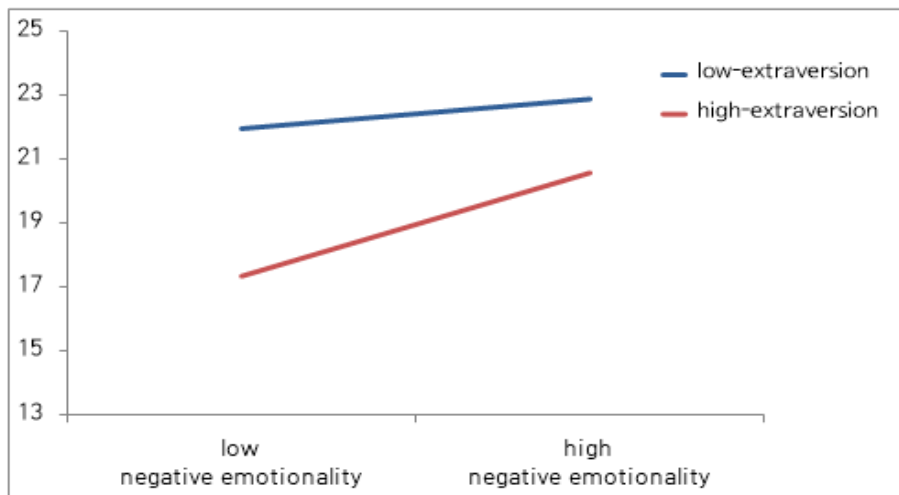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extraver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jection Parenting Behavior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neuro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jection Parenting Behavior (N=221)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Mother's age	1.89	.17 [*]	1.56	1.42 [*]	1.45	.13 [*]
Mother's education level	-2.95	-.19 ^{**}	-2.24	-.14 [*]	-2.20	-.14 [*]
Negative emotionality(A)			.04	.16 ^{**}	.05	.19 ^{**}
Neuroticism(B)			.36	.43 ^{***}	.35	.41 ^{***}
A X B					-.01	-.11
R ²	.06		.28		.29	
F	6.66 ^{**}		22.30 ^{***}		18.72 ^{***}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력은 더미변수화 함(고졸=0, 전문대학 졸 이상=1)

보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t=-6.22, p<.001$). 한편,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거부·제재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1명을 대상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성격특성 그리고 양육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이 고졸인 어머니가 전문대학 졸 이상의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받은 교육기간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양육에 대한 신념, 효능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S. Ahn and S. Kim(2004)의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학력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자신감, 인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성 고정관념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더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 J. Kim and H. Moon(2006), Y. Bek(2007), K. Lee(2011), D. Jeong(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비취업모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거부·제재 양육행동 역시 비취업모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직장에서 얻는 관리 기술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

고 한 A. Crouter(1984)의 연구나 직장 동료들 간의 비공식적인 우정이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E. Greenberger(1989)의 연구를 토대로 취업모가 사회적으로 쌓는 경험과 자신의 일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녀 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일반적 배경변인,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수가 적을수록 어머니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다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H. Song(2004), S. Lee and J. Lee(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다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신체적인 이유(E. Byeon, 1990), 사회활동의 어려움(H. Seo, 1995), 가정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갈등(J. Lee & W. Choi, 2012), 부모역할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E. Kang & S. Kim, 2007)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한명이라 하더라도 한 자녀를 갖게 된 어머니의 동기는 개인마다 다르며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외동아를 갖게 된 어머니의 동기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W. Kim(2002), Y. Bek(200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수와 결합하여 양육행동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대체로 자녀수가 많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및 양육의 부담감을 배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보다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보이는 경우 어머니들은 신체적으로 언어적

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J. Shin(2011)의 연구,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긍정적인 정서적 특성을 갖는 아동의 순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관련 있다는 H. Oh(2006)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아동이 화,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며, 달래지지 않는 특성을 가질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S. Park, C. Jun, & S. Han, 1996)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 보다는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신경증성향을 많이 가졌을 경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이며,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불안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 어려워 아동에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기 어려우며, 어머니의 요구대로 강요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J. Belsky, K. Crnic, & S. Woodworth, 1995; J. Belsky & J. Vondra, 1993; H. Song & K. Kim, 2008). 반면에 어머니의 외향성은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일수록 자녀에게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서 온정성이 높고 거부권위주의 특성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H. Jeon and S. Park(1999)의 연구와 사교적인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나고,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난다는 Y. Sohn(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는 어머니의 신경증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머니는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적게 보였으나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 때는 신경증성이 낮은 어머니가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보다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훨씬 더 높게 보였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동일한 조건의 환경이 주

어질 때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의 어려움을 더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M. Song and S. Han(2011)의 연구,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 보통의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Y. Ahn, Y. Kim, and S. Han(2008)의 연구를 토대로 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정서조절을 잘 하는 순환 기질 특성을 지녔더라도 어머니의 신경증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의 기질특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 신경증성이 낮은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의 기질 특성을 보다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 결과는 조화적합성(Goodness-of-fit)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A. Buss and R. Plomin(1984), S. Park and S. Han(1996)은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을 때 조화를 이뤄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H. Choi and K. Kim(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동 모두 부정적 정서성이 낮고 사회성은 높은 기질 특성을 가진 경우에 어머니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더 많이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동 간에 기질이 유사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반면에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특성이 상이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며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신경증성이 낮을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만남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외향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가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덜 보였으며,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도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가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훨씬 덜 보였다.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도 반영되어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며 자신의 양육스

트레스를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일부 해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Y. Ahn, Y. Kim, & S. Han, 2008). 따라서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지라도 어머니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외향성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습득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보다 덜 거부적이며 제재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어머니의 외향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어머니의 외향성 정도에 따라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가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욱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거부적이거나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간의 조화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기질 특성일지라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의 차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차이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교육을 통해 단순히 양육지식이나 기술만을 전달하기보다 어머니 자신의 정서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어머니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자녀 관련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자녀 관련 요인 간의 상호관련 속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에 주목하였으며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데에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부터 표집된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서만 정보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양육행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응답 외에 제 3자의 관찰을 통해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기질 특성의 발현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몇몇 연구들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사이의 경로를 밝히는 후속 연구도 요청된다.

REFERENCES

Ahn, S. H., & Kim, S. Y.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2), 219-230.

Ahn, S. H., Kwon, H. K., & Park, S. K. (2012). The impact of a husband's cooperation, mother-teacher partnerships, and other social support for on the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s of in low-income

-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4), 231-252.
- Ahn, Y. H., Kim, Y. H., & Han, S. Y. (2008).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ouple's child-rearing agre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Human Ecology*, 12(2), 1-14.
- Bek, Y. 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s University, Seoul, Korea.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 905-929.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 (pp. 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aspi, A. & Shiner, A. (2006). Personality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300-365). NJ : Wiley, 300-365.
- Chang, Y. S., & Cho, Y. S. (2014). Parenting attitude: The effects of a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145-163.
- Chang, Y. Y., & Lee, Y. J. (2012).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3), 357-373.
- Choi, I. S. (2014).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bility,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6), 47-58.
- Chung, K. S., Kim, M. J., & Ha, E. S.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y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73-97.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sta, P., & McCrae, R. (1992). *Comparability of alternative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in peer rat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San Diego.
- Crouter, A. C. (1984). Spillover from family to work: The neglected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Human Relations*, 37(6), 425-442.
- Goldberg, L. R. (1999). A broad 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Gomez, R, Gomez, A., & Cooper. A. (2002).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as predictors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 as predictors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of processing: Comparing ey-senck's gray's, and newman's theor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333-350.
- Greenberger, E. (1989). Contributions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parent's well-being and orientation to 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6), 755-783.
- Jeon, H. J., & Kim, Y. H. (2014).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on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s. *Journal of Human Ecology*, 17(2), 31-44.
- Jeong, D. J. (2014). Effects of the educational beliefs of mother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partnership with teachers o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T. Y., & Roh, H. J. (2005).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2), 211-231.
- Kim, E. J., Park, S. Y., & Lim, H. S. (2009).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9), 71-82.
- Kang, E. M., & Kim, S. G. (2011). The effects of parent-

- ing stress of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and satisfaction for child care services on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6(1), 67-88.
- Kwon, H. J., & Chun, S. Y. (2015).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6), 79-96.
- Kim, J. H. (2010). Children's aggressive/prosocial behavior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 mediat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13-22.
- Kim, N. H., Park, B. K., & Doh, H. S. (2014).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51-163.
- Kim, M. K., & Lee, K. N. (2011).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4), 253-271.
- Kim, S. H., & Choi, H. Y. (2007).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8), 1-11.
- Kim, W. H. (2002). The relations of mother's motivations for achievement and their child-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S., & Hyun, E. J.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223-238.
- Lee, G. S. (2011).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style of infant's mot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27-145.
- Lee, I. H., Park, J. E., & Choi, S. 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4), 81-91.
- Lee, J. S., & Choi, W. S.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Lee, K. S., Kim, H. H., & Kim, M. J. (2010). The influence of a child's gender and age and family socio-economic factors on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a child's socia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4), 187-213.
- Lee, K. Y. (2007). The relation between teacher's child-rearing and educational beliefs,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job stress, infant temperament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 Lee, J. Y. (2010).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 Comparison among sub-scales of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1), 111-130.
- Menon, M., &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s, E. V. E.,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78(6), 1627-1639.
- Moon, H. J. (2000). Rel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6), 29-41.
- Oh, H. J., & Lee, J. H. (2013).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by child gend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185-204.
- Oh, H. S. (2006).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character, and mother's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2), 211-226.
- Park, B. K. (2013). relations among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6), 67-81.
- Park, S. Y.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ersonality, overprotective/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 children's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 Han, S. Y. (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goodness/poorness-of-fit with

-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245-258.
- Park, S. Y., Jun, C. A., & Han, S. Y. (1996).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4), 203-215.
- Park, S. Y., & Rubin, K. H. (2008). Toddler's gender and temperament by maternal stress as predictor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09-124.
- Park, Y. T., & Lee, K. N. (2011).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self-control of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235-256.
- Ruy, H. K., & Lee, S. (2007). Influences of sex,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6), 89-10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hin, J. Y. (2011). Relations among child's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2), 291-312.
- Sohn, Y. J. (2010).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pers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on effect of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E. K.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ersonality,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Song, H. K. (2004). A study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only child's mothers and two or multiple children'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 K., & Kim, K. W. (2008). A comparison study on the mother in behavioral problem group and mother in behavioral non-problem groups about mother-child relationship during mother's childhood, mother's personality, mother's current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4), 23-34.
- Song, M. J., & Han, S. Y. (2011). Effects of mother's neuroticism,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on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117-127.
- Vondra, J., Sysko, H., & Belsky, J. (2005). Developmental origin of parenting: personality. In T. Luster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35-72). NJ: LEA.
- Yoo, T. Y.,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61-75.
- Yoon, J. Y. (2011). Effect of infant's temperament, sleep problems and mother's neuroticism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orea.

Received: November 14. 2016

Revised: January 25.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